

1. 다음 중 보험업법상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되는 보험상품은?

- ① 생명보험상품
- ② 손해보험상품
- ③ 제3보험상품
- ④ 제4보험상품

2. 다음 중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 ① 주식회사
- ② 상호회사
- ③ 외국보험회사
- ④ 유한회사

3.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이 정하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 속에 들어 갈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4분의 1
- ② 3분의 1
- ③ 2분의 1
- ④ 3분의 2

4.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보험료
- ② 보장범위
- ③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④ 보험회사의 주주 명단

5.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a)일(거래당사자가 이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b)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속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a: 5 b: 10
- ② a: 7 b: 14
- ③ a: 15 b: 30
- ④ a: 20 b: 40

6. 보험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우 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은 보험안내자료에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 제95조의3에서 정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7.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중개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받은 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를 준용한다.

8.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회사의 파산
- ② 보험업의 허가취소
- ③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 ④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9. 보험업법 제128조의4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평가대행기관은 조사대상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 소비자 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시기,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정한다.

10.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업법에서는 일반보험계약자와 전문보험계약자로 나누어 보호의 정도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 ②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
- ③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 ④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11. 보험회사의 업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없다.
- ②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은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등이 있다.
- ④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2. 보험대리점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③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은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 ④ 보험대리점이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3. 보험업법 제95조의5에서 규정하는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다.
- ②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 ③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화재보험계약의 가입 유무도 확인 대상이다.
- ④ 중복계약 체결 확인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4.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안내하는 행위
-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5. 보험의 모집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 ②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은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
- ③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6.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 ④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17.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②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③ 보험자는 상법에 규정된 보험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④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8.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 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계약대리점은 약관교부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 ③ 보험자가 약관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9.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 ②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제1차적인 보험료지급의무자는 보험계약자이다.

20.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1월내에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판례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위반시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이다.
- ④ 판례상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

21. 다음 보험계약의 소멸사유 중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경우는?

- ① 약관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최초보험료 미납상태로 2월이 경과한 경우
-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임의해지하는 경우
- ④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2. 다음 중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되는 보험원리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은?

-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리
- ② 위험단체의 구성원이 지급한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원리
- ③ 동일한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여 구성원 중에 우연한 사고를 입은 자에게 경제적 급부를 행한다는 원리
- ④ 장기간 사고발생을 대량 관찰하여 발견한 일정한 법칙에 따라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술적 원리

23.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③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4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④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선박을 양도할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하지만,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②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③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④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

25. 보험계약의 변경사유와 그 효과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 ① 보험의 목적의 양도 -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시 통지 - 1월 내 보험료의 증액 청구 또는 보험계약의 해지
- ③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위반 - 계약 성립일로부터 3월내 취소 가능
- ④ 정당한 사유없는 피보험선박의 이로(離路) - 이로가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자 면책

26. 甲은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 당시 甲은 보험수익자란에 단순히 '법정상속인'으로만 기재하였다. 甲에게는 배우자 乙과, 미성년의 자녀 丙이 있다. 다음의 각 경우에 상법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자신의 사망 전에는 언제라도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과 이혼하였으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하였다면,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확정되므로 보험자는 乙과 丙을 보험수익자로 보고 보험금지급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甲이 乙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으나, 보험기간 중에 甲과 乙이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라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인 丙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 ④ 甲이 보험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甲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7.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면제된 경우에 보험자의 보험적립금반환의무가 없는 것은?

-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임의 해지한 경우
- ②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 ③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28. 손해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④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9.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복보험통지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상법에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②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중복보험이 체결된 때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④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0.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지 않는다.
- ②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④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31. 운송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금액으로 한다.
- ③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 중에 산입한다.
- ④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2. 해상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②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④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선박이 정해진 때에 개시한다.

33. 해상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 ②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 ④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할 수 있다.

34. 책임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피보험자가 위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 ④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5. 인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② 보험금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인보험에서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가 허용된다.
- ④ 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인보험증권에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36.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보험자에 의한 구두 또는 묵시적인 동의는 불가능하다.
- ② 장래 체결될 모든 사망보험계약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③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면제된다.
- ④ 타인의 생존보험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없다.

37. 생명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38. 상해보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 ② 상해보험에서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③ 상해보험은 인보험과 손해보험 양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 ④ 상법 보험편에 규정되어 있는 생명보험에 관한 모든 규정은 상해보험에 관하여 준용한다.

39. 상법상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② 질병보험은 건강의 손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인 건강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 ③ 질병보험은 인보험에 편제되어 있다.
- ④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재보험,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0. 상법상 보증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41. 민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판례는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이 있다고 한다.
- ②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주소에 관한 민법총칙편의 규정은 민법 중 물권편과 채권편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 ④ 북한에는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2. 자연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민법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지는 같지 않을 수 있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후견계약에 따라 후견을 받는 사람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43. 문화에 관계된 사단법인의 청산을 감독하는 기관은?

-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② 주된 사업인 교육에 관한 주무부장관인 교육부장관
- ③ 허가신청서류를 먼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④ 법원

44.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며, 파산은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 ②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의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관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
- ③ 민법은 청산인의 직무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를 규정하고 있고, 청산인은 이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45.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견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판례에 의하면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농작물을 심는 경우에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②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 ③ 입목법에 의한 등기를 한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 ④ 명인방법을 갖추면 개개의 수목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46. 다음 중 유효한 법률행위는?

- 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 ③ 첩관계청산을 위한 재산제공행위
- ④ 씨받이 계약

47. 다음 중 무효인 것은 몇 개인가?(견해가 대립하면, 판례에 의함)

- (가) 의사무능력자의 의사표시
- (나) 허위표시
- (다)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 (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마)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한 의사표시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8.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 갑이 그의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병의 컴퓨터를 팔아달라는 부탁(위임)을 받고 병을 대리하여 정과 그 컴퓨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틀린 것은?

- ① 갑은 병과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갑은 정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을은 갑과 병 간의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을은 갑과 정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49. 다음 중 채무자의 기한이익의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시킨 때
-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 ③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때
- ④ 채무자의 자력악화

50. 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하여 틀린 것은?

- ① 어느 회사의 정년이 만60세인 경우에, 1957년 4월 8일 20시에 출생한 직원은 2017년 4월 7일 24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 ② 2014년 12월 30일 11시에 “지금부터 2개월까지”라고 한 경우에, 그 기간은 2015년 2월 28일까지이다.
- ③ 친구에게 병원비를 빌려줌으로써 가지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지상권은 2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소멸시효기간이 1년인 채권에 대한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0년이다.

51.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인은 1억원 이상이다.
- ②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최대한도는 100억원이다.
- ③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 ④ 법인은 3억원 이상이다.

52. 보험중개사는 장부 및 서류를 원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가)간, 재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재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나)간 보험중개사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보존해야 한다. ()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은?

- ① 가 3년 나 5년
- ② 가 3년 나 10년
- ③ 가 5년 나 10년
- ④ 가 10년 나 10년

53.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에 대하여 등록취소 대신 ()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기간은?

- ① 3개월
- ② 6개월
- ③ 1년
- ④ 2년

54.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기재한 서면을 미리 발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
- ② 직무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③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얻은 보험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전달한다는 내용
- ④ 보험회사의 규모, 평판 등에 따라 업무수행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

55. 법인보험중개사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보험중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③ 법인보험중개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월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6. 보험중개사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 ②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 ③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④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57. 보험중개사의 자기계약금지로서,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에는 그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안에 들어 갈 말은?

- ①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
- ② 보험계약의 누계 건수가 그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 계약 건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
- ③ 보험사고발생시 지급할 보험금액의 누계액이 그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된 경우
- ④ 보험료 누계액 또는 보험계약 건수 모두가 그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료 및 계약 건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

5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자기계약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로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보험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9. 보험중개계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중개계좌는 각 보험사별로 개설하여야 한다.
-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모든 수입을 수령하는 즉시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③ 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게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한 지급을 할 수 있다.
- ④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60. 결약서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 ② 보험의 목적 및 가액
- ③ 보험료 및 그 납부방법
- ④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수액